

연체율 일제히 오르는데... 카드사 BNPL 진출 '시기상조'

(선구매 후결제)

핀테크사와 경쟁 위해 진입 예고
KB국민, 다날과 연내 서비스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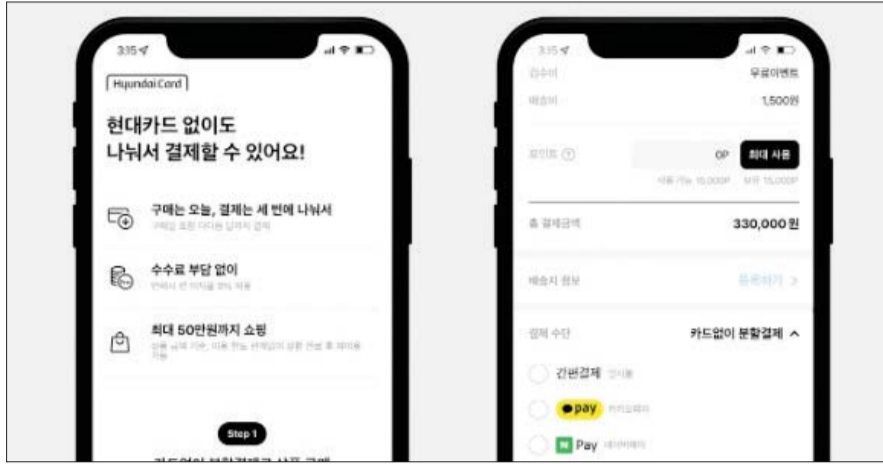
신한·삼성 등 1분기 연체율 상승
BNPL 연체율, 상대적으로 높아
새 할부 금융상품 골칫거리 우려

카드업계가 핀테크사와의 경쟁을 위해 선구매 후결제(BNPL) 시장 진입을 예고했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신사업을 시작하기에는 1분기에 상승한 연체율이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NPL이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로 저신용자나 '신파일러(Thin Filer)' 또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부 금융 상품이다.

BNPL 시장은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



현대카드 무신사 BNPL 서비스 화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2개월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대카드

르면 간편결제서비스 공급자별 비중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0.4%로 과반을 넘어선다. 아울러 BNPL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4%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소비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MZ세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내 카드사 중 BNPL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든 곳은 현대카드다. 상업자표 시신용카드(PLCC) 협력업체인 무신사의 '솔드아웃'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 없이 분할결제'라는 명칭의 BNPL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현재 임시 중단한 상태다. 서비스 재

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BNPL 서비스 출범을 예고했다. 사내벤처 기업인 '다날'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중이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축적된 채권관리 역량을 활용해 연체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BNPL 서비스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발표 이후 카드업계는 올해 2분기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운영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새로운 할부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BNPL의 연체율은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매달 30만원 한도로 소액

결제만 가능하지만 신파일러와 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연체율이 증가하기 쉬운 상품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의 BNPL 총 채권액은 4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토스의 연체율은 1분기 기준 5%에 달한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2.7%), 카카오페이(0.51%) 순이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1%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전문성이 BNPL 서비스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김소영 "보험사 새 상품 기반 글로벌 경쟁 필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국내 업계 해외진출 전략 논의

"보험회사 간 출혈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보험상품의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사의 경우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글로벌 보험사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인도 8.7%, 중국 8.4%, 프랑스 6.5%인 반면 한국은 2.4%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가 10.9%로 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세계 평균(6.8%)치를 웃도는 것으로 봤을 때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채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영국, 네덜란

드, 일본 등 주요국 보험회사들이 공통 성장전략 중 글로벌화를 꼽고 있다"며 "국내 보험회사도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해외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다양한 생활 양태, 신기술을 경험한 글로벌 보험회사가 국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과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상품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한편 새로운 생활 양식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글로벌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메리츠화재, 최대 28% 저렴해진 펫보험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유리한 절세방법 확인
'중소세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현대해상, 굿앤굿 가족감사 이벤트
퍼펙트플러스 가입시 10% 할인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보험료를 줄여 가입 문턱을 낮췄다.

◆ 생후3개월부터 만10세까지 가입 가능

메리츠화재는 기존 대비 보험료가 최대 28% 저렴해진 펫퍼미트의 신상품 2종 ('무)펫퍼미트Puppy&Love', ('무)펫퍼미트Cat&Love'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상품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반려견과 반려묘의 보험료가 각각 3%, 15% 저렴하다.

의료비 담보의 자기부담금 유형을 추가해 선택 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 1만원으로 단일 고정이었으나, 2만원과 3만원 유형을 추가해 고객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만원 또는 3만원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1만원 대비 2만원 선택 시 반려견은 8%, 반려묘는 7% 저렴하며 3만원 선택 시 반려견은 15%, 반려묘는 13% 내려간다. 자기부담금 3만원 유형으로 반려묘를 가입할 경우 최대 28% 가까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생후3개월부터 만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비법을 공유한다.

◆ '소크라텍스' 활용해 5월 종합소득세 사전 확인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고 유리한 절세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소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크라텍스는 각위커 및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앱에 접속해 '소득구간별 경비인정 비율', '거래입증을 위한 필요경비 증빙 방법' 등을 확인 후, 전년도 수입과 지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 가능하며,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절세 바이블' 메뉴를 통해 세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꼭 알아두어야 할 혜택과 정책, 세무용어 등 흩어진 세금 정보와 지식을 한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해상이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 '굿앤굿부모10%할인' 및 '굿앤굿어린이간편종합보험'

현대해상은 '굿앤굿 가족'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굿앤굿 가족'이벤트의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굿앤굿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님이다. 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어린이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료 10%를 할인해 준다.

병력이 있는 어린이도 질문사항을 통해 가입 가능한 '굿앤굿어린이간편종합보험'도 출시했다. 질문사항은 3년 이내 중대질병 치료이력 여부 등 3가지로 간소화했다. 5세부터 최대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정선 기자

한은 화폐박물관 "화폐속 세계유산전 관람하고 기념품 받으세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오는 10월까지 '화폐속 세계유산전'을 개최한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폐박물관에서 '화폐속 세계유산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화폐속 세계 유산전은 화폐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터치스크린형 체험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전시회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세계의 화폐실 내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5월 중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화폐박물관을



화폐속 세계유산전.

/한국은행

방문한 관람객은 기념품을 제공하고,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화폐박물관 발간서적 '알고싶어요! 세상을 품은 화폐속 여성들'을 증정한다.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화폐속 세

계유산', '화폐속 여성들의 빛나는 발걸음', '화폐속 바다이야기' 전시회를 방문한 뒤 전시실 전경이나 관람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포스팅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